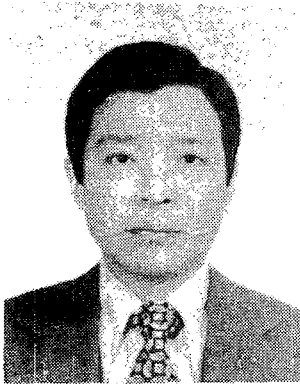




菊花를 바라보며



金亨徹
〈環境庁 計劃調整局長〉

覺悟하고 인내하자. 시린 눈발 헤치고 향기를 내뿜는 국화의 高節을 가지고 우리의 琢磨된 기량을 힘껏 발휘하자. ...協會報 100 號째를 접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협회보의 성장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난 苦楚와 애환을 되새김질 하고 있으며 동시에 눈부신 새벽을 맞이하는 것이다.

속성재배 탓으로 벌써 어딜가나 菊花가 소슬한 가을의 大氣속에서 점점 짙어가는 落葉과 그 색조의 美를 겨루고 있다.

국화는 다른 꽃나무에 비하여 開花할 때까지는 오랜 日照量을 필요로 하므로 대개는 초겨울이 되어야 그 滿開한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옛부터 文人은 菊花를 좀 달리 느꼈고 읊었으리라.

菊花는 어이하여 三月東風 다 보내고 落木寒天에 너 홀로 피었는가.

아마도 傲霜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이는 世俗을 메스껍게 본 은둔자의 心情이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적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로 시작하는 詩는 고등학생이상이라면 苦盡甘來의 심금을 울리는 國民의 愛誦詩가 아닌가 싶다.

세상만사가 이렇게 苦痛과 試鍊을 이겨내고 어떤 目標에 다달았을 때 보람과 자량을 느끼는 것이 우연이나 努力에 비하여 과다한 效果를 얻었을 때에는 그 자체 부러움을 살 수 있을지언정 보람은 적게 느껴지는 법이다.

환경문제에 관련한 産業革命을 일으킨 英國이거나, 우리와 같이 그러한 과정을 경험한 바 없이 近代化過程을 거친 나라이거나 간에 수많은 試鍊과 沒理解 속에서 조금씩 發展을 이룩하였고 發展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英國의 경우 産業化와 富의 蓄積에 따른 만족과 도취 속에서 런던스모그의 재앙을 경험하였고 그것이 環境保全活動의 촉진제가 되었으며, 우리의 경우에는 60년대 이후의 산업사회화 과정에서 意圖的으로 도외시하던 環境에의 關心疎忽이 점차 深刻한 社會問題로까지 번지면서 좋건 싫건간에 環境에의 關心을 불러 일으키고 보전대책을 강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겠다.

근래 우리의 경우 環境에의 관심도를 살펴 본다면 의도적인 무관심에서 자연적인 관심으로 移

行하였으며 최근에는 자연적인 관심에서 다시 적극적인 관심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겠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82~'86)에서의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調和라는 국가정책목표를 설정한 것이나 2천년대를 내다보는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의 수립, 대도시 오염저감대책 그리고 대대적인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설치등이라고 하겠다. 실로 겨우 10년이 되지 않은 동안에 환경에의 관심변화는 가히 놀라울 정도라 하겠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장래를 위하여 정말 다행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60년대 초부터 배태되기 시작한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욕구가 지금에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 것이라는 데에 생각이 미친다면 그간의 정책결정자나 전문가들이 그 얼마나 많은 날을 빈민과 고통 속에서 지냈으며, 그 얼마나 많은 善良한 국민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피해로 가슴을 치고 원통해 했겠는가에 관하여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우리가 오늘에야 비록 가느라리고 조그마하나마 위에서 예로 든바와 같은 환경보전의 菊花봉우리를 바라보게 되었음은 이러한 피를 토하는 소쩍새의 울음 소리가 긴긴 밤을 지새면서 들렸기 때문에,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기 때문이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금의 우리 현실을 살펴 본다면 바야흐로 환경보전의 분위기는 조성되었다.

환경보전의 기본적인 장단기전략도 마련되었으며 공해추방을 위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정책의지도 확고히 정립되었으며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력도 배양되었으며 이를 조직적으로 활용하는 수단도 구체화되었다. 이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만 남아 있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집어 넣고 꿰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정부와 기업체 그리고 국민전체의 참여와 一體感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환경전문인력이 召命意識을 가지고 뒷받침하여야 한다.

뒷받침한다는 것, 그것은 舞臺幕 뒷면에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박수의 대상도 照明的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오직 헌신과 苦痛이 요구될 뿐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자. 覺悟하고 忍耐하자. 시린 눈발을 헤치고 새하얀 香氣를 내뿜는 菊花의 그것과 같은 高節을 가지고 우리의 琢磨된 技倆을 힘껏 발휘하자.

우리는 오늘 우리의 一體感을 確認해주는 環境保全協會報의 100號째를 접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協會紙의 成長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난 苦楚와 憂환을 되새김질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의 자그마한 성장과 눈부신 장래의 새벽을 맞이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 선배와 우리가 새겨놓은 지난날의 발자국에 고인 빗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배와 우리가 발자국마다에 흘린 땀과 피의 뒤범벅은 오늘의 환경보전 분위기를 마련한 養分이며 지금부터 걸어가 발자국마다에 담길 땀과 피는 환경의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자양분 공급의 각도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 탐스러운 皇菊을 꽃피울 수 있다. 그 때 우리는 더할 수 없는 보람과 자량으로써 成三問의 다음과 같은 옛시조의 香薰을 權域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風霜 섞어친 날에 갖피온 皇菊花를 金盆에 가득담아 玉堂에 보내오니 桃梨야 꽃인양마라 님의 뜻을 알래라. *

☆ 믿는 마음 지킨 약속

다져지는 신뢰사회 ☆